

공공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운영 방안 연구*

- 부산지역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

A Research on Cultural Programs in Public Libraries in Busan Metro Area

장 덕 현 (Durk Hyun Chang)**

목 차

- | | |
|---------------------|--------------------|
| 1. 서론 | 3. 면담 및 사례 분석 |
|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3.1 조사개요 |
| 1.2 연구의 내용과 방법 | 3.2 자료수집 및 분석 |
| 2. 공공도서관의 문화적 지향 | 3.3 조사결과 |
| 2.1 관련연구 | 3.4 공공도서관 문화서비스 방안 |
| 2.2 공공도서관 문화프로그램 현황 | 4. 결론 |

초 록

이 논문은 공공도서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문화프로그램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에 대하여 고찰한 연구의 결과물이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에서는 부산지역 공공도서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문화프로그램들의 현황과 한계점을 분석한 후, 실제 공공도서관에서 문화프로그램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사서들과의 면담을 통하여 현장에서 인식하고 있는 공공도서관 문화프로그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하였다. 아울러 현재 해외의 공공도서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문화프로그램 사례 분석과 사서들과의 브레인스토밍을 통하여 우리나라 공공도서관들이 지역문화계와의 네트워크, 무한창조공간, 건강정보서비스와 이용자개별화 등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ABSTRACT

Cultural programs in public libraries are on the rise in Korea. In this regard, this study attempts to investigate the current situation and limitations of cultural programs in public libraries in Busan metro area. This paper also suggests future strategies in order to improve the quality of such programs and to cope with changes of user demands and future trends. Data were collected from 29 public libraries in Busan Metro area. Supplementary data were also collected through qualitative interviews and brain-storming discussions with public librarians who are in charge of cultural programs in public libraries. Cases from other countries were also analyzed in terms that they might be adopted for cultural programs in public libraries in Korea.

키워드: 공공도서관, 도서관계획, 문화프로그램, 부산, 평생교육

Public Library, Library Planning, Cultural Program, Busan, Lifelong Learning

* 이 논문은 부산대학교 자유과제 학술연구비(2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dchang@pusan.ac.kr)

논문접수일자: 2014년 10월 22일 최초심사일자: 2014년 11월 3일 게재확정일자: 2014년 11월 14일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8(4): 173-192, 2014. (<http://dx.doi.org/10.4275/KSLIS.2014.48.4.173>)

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공공도서관 서비스의 지형은 변화하고 있다. 독서를 위한 자료 제공과 이용자 지원 그리고 정보서비스는 여전히 도서관의 본질적 기능임에 틀림없지만, 보다 넓은 범위에서 일상생활 중심의 문화프로그램과 커뮤니티 서비스 등이 공공도서관에 있어서 또 하나의 중요한 기능으로 자리잡고 있다.

『도서관법』 제28조에서는 공공도서관의 업무를 정보 및 문화 교육센터로서 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공중에 이용 제공과 공중이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지방행정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등에 더하여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등으로 정하고 있다. 2014년에 발표된 제 2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서도 인문정신문화 고양을 통한 공동체 소통의 강화를 위하여 공공도서관에서 각종 문화프로그램을 확대할 것이라 밝히고 있다. 이렇듯 공공도서관의 문화적인 기능은 최근 들어 소득수준의 향상과 여가시간의 증가, 그리고 노년인구의 증가로 인한 문화적 욕구의 확충과 문화복지에 대한 정책적 지원 등에 힘입어 날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민들의 요구 또한 다양해지고 있다. 그들은 더 이상 공공도서관을 단지 책 읽는 곳 정도로 여기지는 않는다. 특히 2000년 3월 평생교육법이 시행됨으로써 평생 교육을 받을 권리와 이를 통하여 나은 삶을 추구하려는 요구가 증진되었으며, 이에 대한 투자도 증가하였다. 이후 주 5일제 근무 시행과 경제수준의 향상 및 퇴직 인구

의 증가 등으로 잠재적인 도서관 이용자들이 급격히 증가한 것이다. 주민들은 가까운 곳에 공공도서관이 위치하면서 정보와 교육, 그리고 문화와 평생교육 활동 등 일상적으로 문화적 혜택을 한 곳에서 누릴 수 있도록 공공도서관이 복합적인 기능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문화란 결국 일상적 생활의 방식(ways of life)이라고 하는 측면(Raymond Williams 1983)에서 공공도서관의 문화프로그램이 사용자들의 일상적 요구와 유리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몇 년간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이고 있는 작은도서관의 확산 요인에서도 이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지역 주민들이 지리적으로 멀고 교통이 불편한 곳에 위치한 공공도서관보다 거주지 가까이(걸어갈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면서 주민들의 생활과 밀착된 일상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작은도서관에 더욱 친근감을 느끼는 것이 작은도서관이 확산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이다. 작은도서관에 관한 연구들(국립중앙도서관 2012; 양병훈 2012)이 이러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들은 공공도서관이 할 수 없는 혹은 하기 어려운 세밀한 서비스를 개발하여 지역민들에게 다가가고 있으며, 동네 사랑방 같은 커뮤니티 서비스의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현재의 공공도서관 정책 또한 공공도서관이 이러한 생활밀착성을 지니고 전통적인 도서관 기능에 더하여 문화기반 커뮤니티 활동의 구심점으로 기능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각급의 공공도서관에서 문화적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는 사례는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행한 보고서에서도 이러한 사실

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인식에 근거하여 이 글에서는 부산지역 공공도서관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문화프로그램들을 분석하여 공공도서관 문화프로그램의 방향성에 대하여 논하였다. 위의 조사를 토대로 시민들의 공공도서관에 대한 요구를 가늠하며, 해외 사례 등을 참조로 공공도서관 서비스의 트렌드를 점검하고 실제 공공도서관에서 문화프로그램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사서들과의 면담을 통하여 향후 공공도서관 문화프로그램의 발전 방안에 대하여 고찰해 보았다.

1.2 연구의 내용과 방법

이 연구에서는 현재 부산지역 공공도서관에서 시행되고 있는 문화프로그램을 조사하여 현황과 문제점을 도출하고, 실제 공공도서관에서 문화 프로그램 운영을 담당하는 사서들과의 면담과 해외의 공공도서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문화프로그램의 사례를 소개한 후, 이에 대한 사서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프로그램 운영의 개선방안을 논하였다.

문화프로그램의 현황은 2013년 말 기준으로 부산시에 존재하는 29개 공공도서관의 홈페이지와 통계자료 등을 통하여 수집하였다. 이후 문화프로그램이 비교적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공공도서관들을 대상으로 문화프로그램 운영을 담당하는 사서 6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시행하였다. 표본의 모집은 의도적 표집으로 눈덩이 표집 방법을 사용하였다. 의도적 표집방법은 질적 연구에서 사용하는 비확률적 표본모집방법으로, 연구자가 연구 참여자의 기준을 의도적으로 정함으로써 가장 풍부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연구

조건을 만든다. 의도적으로 표집한 연구 참여자와 개별면담을 실시하고 그 네트워크를 통해 다른 참여자의 정보를 수집하여 면담을 가지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면담은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하여 진행되었으며, 상황이나 수집된 자료의 정도에 따라 면담을 시행하고 자료가 부족할 경우 전화 등으로 보완하였다. 면담 시간은 1회 평균 2시간에서 2시간 30분 정도로 딱히 시간을 제한하지는 않았으며, 면담 내용은 동의를 얻은 후 녹취하였다. 자료의 수집은 2014년 5월에서 7월 사이에 진행하였다.

면담을 통하여 수집된 데이터는 질적 자료 분석 소프트웨어 NVivo1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NVivo는 1995년 QSR사가 개발한 질적 자료 분석 소프트웨어로 현재 버전 10이 나와 있다. NVivo10은 컴퓨터로 질적 자료를 분석하는 소프트웨어로 텍스트화 된 자료를 단어, 구, 문장 단위로 개별적인 코딩을 함으로써 범주를 형성하고 이론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한다. 수집된 자료를 단계적으로 범주화하고 조직화할 수 있도록 자료와 색인체계 및 이론적 작업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자료 분석을 위해 팀 단위의 분석 작업이 가능한 프로젝트 기능도 갖추고 있다.

NVivo를 비롯한 질적자료 분석 소프트웨어들은 대체로 분석 작업에 이용되는 모든 파일(텍스트)을 담으며 전체적인 분석이 이루어지는 '프로젝트'와 수집된 자료를 텍스트화 시킨 개별 '다큐먼트', 이 텍스트들에 낱말, 구, 문장 단위로 이름을 붙여 나가는 코딩작업과 관련된 '노드'가 기본 골격이다. 또한, 다큐먼트와 노드에 '속성(attributes)'체계를 명시하여 자료를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코딩작업과정에서 트리구조의 도식이 작업과정에 따라 그려지고 연구자가 원하는 속성의 자료만 매트릭스 형태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구결과를 조직적으로 볼 수 있고 이들의 관계를 설정하고 도식화하는 이론화하는 기능을 지닌다.

Nvivo를 사용하면 수집된 자료를 세부적으로 분석할 수 있고, 코딩에 있어서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연구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 공공도서관의 문화적 지향

2.1 관련연구

도서관의 문화프로그램은 현대적 의미의 공공도서관이 자리잡은 1850년대부터 주로 전시, 문화 공간 제공의 개념으로 시작되었다. 영국의 경우에는 초기부터 공공도서관이 박물관이나 미술관 등과 동일한 문화기관으로 설치, 운영되었으며, 미국의 경우 1960년대 인문학진흥기금(National Endowment for the Humanities)의 지원을 받아 예술과 인문학을 위한 국가재단(NFAH: National Foundation on the Arts and the Humanities)이 설립됨으로써 문화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되었다. 1970년대까지는 미국의 경우에도 공공도서관에서의 문화프로그램의 지향은 그 문화프로그램이 궁극적으로 자료의 이용으로 이어지는 경우로 한정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그 이후부터는 도서관시설 및 설비만을 활용하는 경우도 포괄하고 있

다(Davis 1974, 24).

국내에서는 1990년대 중반 문화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한 공공도서관의 문화적 기능 활성화 방안 연구에서 공공도서관 문화프로그램의 중요성을 언급한 이래(한국문화정책개발연구원 1995)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진 바 있다. 대표적인 예로 문화프로그램 운영현황 및 방안에 대한 연구(이경민 2003; 김홍렬 2004; 황금숙, 김수경, 박미영 2008; 광철완 외 2009; 감미아, 이지연 2013), 도서관 문화프로그램 특성화에 대한 연구(이소연 2004; 박미영 2007; 심효정, 이용훈 2003; 장우권 2009), 도서관 문화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연구(홍민희 2004; 박은정 2001), 그리고 다문화 지원단체 등 지역문화시설과의 연계 방안에 대한 연구(류병희 2003; 홍희경 2008; 안인자, 박미영 2011; 광동철 2005) 등 관련 연구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진 바 있다.

2.2 공공도서관 문화프로그램 현황

2.2.1 공공도서관 문화프로그램의 의미

도서관의 문화프로그램은 지역주민의 오락, 계몽, 교육을 목적으로 하며 내용적으로 예술, 인문학, 과학, 공공정책, 지역사회의 주요 안건 등이 포함된다(Robertson 2005, 3). 또 다른 정의는 포괄적인 관점으로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자료 중심의 서비스와는 달리 도서관의 문화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일련의 프로그램으로 문화예술 관련 강연 전시 공연이나독서교실, 독서캠프, 북스타트운동 등과 같이 독서교육 및 독서문화 진흥 관련 활동과 행사를 포함한다(문화관광부 2007).

한국도서관협회는 공공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의 유형을 어학관련 프로그램, 정보화관련 프로그램, 가족 생활 관련 프로그램, 예술 관련 프로그램, 전통문화 관련 프로그램, 기타의 영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곽철완 등(2009)에 의하면 문화프로그램은 내용에 따라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예술프로그램으로 미술 전시, 음악 및 연극공연, 영화상영, 문학 관련 강좌 및 행사 주제별 문학 소개 및 토론 등이 포함된다. 둘째, 독서 프로그램으로 독서 활동 및 독서 관련 행사 등이 포함된다. 독서토론, 북 토크, 작가와의 만남, 청소년 독서 지도 및 독서 캠프, 논술 지도, 동화 구연, 스토리텔링, 독후 활동 등이다. 셋째, 주제별 강좌 행사프로그램으로 특정 주제에 대한 일회성 강의 및 행사 프로그램이다. 1인 강사의 강의 형식을 취할 수도 있고 발표자와 패널 토론자를 갖춘 패널 토론 형식을 취할 수도 있다. 넷째, 교육 강좌 프로그램으로 도서관 장서 및 시설을 활용하여 지역 주민들의 평생교육을 위해 제공되는 프로그램이다.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과 청소년 및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취미·문화강좌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는 지역주민들의 여가활용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종이접기, 댄스스포츠, 요가, 꽃꽂이, 사진, 비누공예 등이 포함된다.

가장 최근에 조사된 문화체육관광부(2012)의 실태조사에서는 도서관 문화프로그램의 유형을 문화(예술)강좌, 독서교육 및 독서문화 관련 활동, 문화행사로 구분하고 있다.

2.2.2 공공도서관 문화프로그램 현황

최근 공공도서관에서도 문화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대부분의 공공도서관에

서 다양한 문화강좌와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있고 독서모임이나 독서관련 프로그램 등의 운영을 통해 자료 이용과 독서 문화 조성을 기하고 있는 분위기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2012년 수행한 전국공공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실태조사에 의하면 공공도서관 문화프로그램은 응답도서관 468관(전체 공공도서관의 61.8%)이 총 14,152개의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1관당 평균 30.2개를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에서는 정기적으로 연 3-4회 시행되는 프로그램도 1개의 프로그램으로 산정함에 따라 실제 프로그램 수는 5만개를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내용은 주로 독서, 문화예술, 교육(IT, 언어 등)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대부분 일반강의로, 서비스 대상은 성인, 초등저학년, 전체, 초등고학년, 영유아 순으로, 정보소외계층 관련 문화프로그램은 전체의 약 5.5%(778개) 정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용자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은 독서(39.9%), 문화예술(28.5%), 교육(23.7%)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운영형식은 일반강의(53.8%), 체험(18.1%), 특강(9.6%), 공연(7.2%) 순으로 나타났다. 대상은 성인(33.0%), 영유아(14.0%), 대상자복합(12.6%), 초등저학년(12.3%) 순으로 조사되었다.

도서관 운영주체별 문화프로그램 수를 비교하면 교육청도서관이 7,823개(55.3%), 이어서 지자체 5,100개(36.0%), 어린이·사립 1,229개(8.7%) 순으로 나타났다. 공공도서관 수로 볼 때 지자체도서관은 275관(56.5%), 교육청도서관이 175관(36%)인 것을 감안하여 교육청도서관이 지자체도서관보다 더 많은 수의 프로그램

을 수행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들이 대체로 규모가 크고 평생교육 차원의 지원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문화프로그램 내용을 보면 교육청의 경우 독서(31.8%), 교육(30.7%), 문화예술(29.3%) 순으로 나타난 반면, 지자체의 경우 독서(37.0%), 문화예술(26.2%), 교육(23.3%) 순으로 나타났다.

2.2.3 부산지역 공공도서관 문화프로그램 현황

부산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부산지역의 공공도서관들도 문화프로그램에 전보다 많은 비중을 두고 있으며, 범위도 다양해지고 있다. 이는 부산지역의 29개 공공도서관 가운데 화명도서관과 강서도서관을 제외한 27개 도서관이 평생학습관으로 지정되어 있어 평생학습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이 활발하며, 변화하는 지역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최근 몇 년을 두고 부산지역 공공도서관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를 조사한 보고서에서도 시민들이 기존의 서비스를 넘어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2011년에 부산광역시 교육청이 시행한 공공도서관에 대한 요구조사의 결과를 보면 시민들의 주된 공공도서관 이용 목적이 '자료이용', '취업/자격/학교시험 공부', '휴식/지인과의 만남'에 이어 문화프로그램(행사) 참여순서로 나타난(부산광역시교육청 2011) 반면, 2014년 부산지역 대표도서관 건립을 위하여 이루어진 설문조사에서는 '자료이용'에 이어서 '문화프로그램 참여'가 공공도서관의 주된 이용목적으로 나타나 시민들의 공공도서관에 대한 요구가 변화하고 있음

을 보여주고 있다(부산광역시 2014).

이 보고서에서는 예전에는 공공도서관 이용자의 대부분이 시설이용자였지만 최근의 공공도서관 이용자들의 요구는 시설보다는 자료와 프로그램에 집중하고 있으며, 특히 도서관서비스 가운데에서도 노년층, 어린이, 다문화 서비스 등 이용대상에 따라 특화된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시민들의 도서관에 대한 요구도 대출, 열람 서비스, 문화복합시설, 독서문화진흥 서비스, 생활정보 등의 순서로 나타나 공공도서관에 대하여 기본적인 도서와 대출 및 열람 서비스에 더하여 문화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을 기대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부산광역시 2014).

이러한 요구를 기반으로 부산지역 공공도서관 문화프로그램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조사의 범위는 2013년 한 해 동안 운영된 부산시내 29개 공공도서관의 문화프로그램들로 한정하였다. 조사의 대상은 방과 후 학교나 토요스쿨 프로그램 등 유아, 어린이,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을 제외하고 성인 이상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으로 한정하였다. 문화프로그램의 유형은 관련 연구기관이나 학자들이 다양하게 구분하고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광철완 등의 연구(2009)에서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5개의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부산지역 공공도서관 문화프로그램 현황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표 1>에 나타난 대로 2013년 한 해 동안 시행된 부산지역 공공도서관 문화프로그램 현황을 조사한 결과, 부산지역 공공도서관에서는 총 636개의 성인대상 문화프로그램 강좌를 실시하였다. 이 가운데 독서와 교육강좌가 206개와 171개로 비교적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

〈표 1〉 부산지역 공공도서관 문화프로그램 현황

구분	내용	프로그램 수	비율(%)
예술	미술, 전시, 음악 및 연극공연, 영화상영 등	86	13.5
독서	독서활동 및 독서관련 행사: 독서토론, 북토크, 작가와의 만남, 독서캠프, 동화구연, 스토리텔링, 독후활동 등	206	32.4
주제별강좌	특정주제에 대한 일회성 강의 및 행사: 웃음치료, 분노관리, 온라인 창업, 시사문제	94	14.8
교육강좌	주민의 평생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171	26.9
취미문화강좌	여가활동 지원: 종이접기, 댄스스포츠, 요가, 비누공예, 낚시 등	79	12.4
계		636	100

다. 교육의 내용은 어학강좌가 많고 컴퓨터와 정보활용능력 강좌 등이 많이 개설되고 있었다. 독서관련 강좌는 206개로 전체 프로그램의 3분의 1 가량을 차지하고 있어 공공도서관의 문화프로그램이 도서관의 특징을 반영하고자 하는 방향성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기에는 독서 강좌나 독서회 활동으로 이루어진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독서코칭이나 동화구연 지도사, 독서지도사 등 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강좌도 많이 편성되어 있었다.

부산지역 모든 공공도서관에서 많은 수의 문화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으며, 그 중 가장 많은 것은 영화상영으로 대부분 주말을 이용하여 다양한 영화를 상영하고 있었다. 대부분 도서관에서 유사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었고, 전반적으로 지자체 소속도서관보다는 교육청 소속 도서관들에서 평생교육 및 문화프로그램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었으며, 규모가 큰 도서관들에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었다.

어학강좌는 8개의 도서관에서 11개의 강좌가 실시되고 있으며 독서관련 강좌와 생활문화 강좌는 세부 내용은 약간씩 차이가 있으나 모든 도서관에서 실시하고 있다. 또한 컴퓨터강좌는 8개 도서관에서 운영되고 있었으며, 기초적인

컴퓨터 활용에서부터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하는 강좌까지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었다.

취미문화강좌는 49개로 가장 낮은 10.6%의 비율을 보였다. 취미 문화 강좌가 아예 개설되어 있지 않은 도서관도 있었으며, 예술 프로그램의 경우도 시행하고 있는 도서관이 많지는 않았다.

부산의 역사와 문화 등을 포함한 향토 문화강좌는 총 10개 도서관에서 실시하고 있었다. 조인숙 등(2010)은 제주지역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공공도서관에서 지역 문화 관련 프로그램이 부족하다고 지적한 바 있는데, 부산지역의 공공도서관들의 경우 2010년 이후 정부의 인문학 진흥사업에 따라 지역 관련 역사, 문화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지역 대학이나 연구소 등과의 협조를 통하여 향토문화 관련 프로그램을 비교적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었다. 즉, 향토문화에 대한 강좌와 답사 프로그램 대부분은 한국도서관협회의 ‘길 위의 인문학’ 등 외부의 사업지원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는 경우가 많았던 점이 특징적이라 할 수 있었다. ‘길 위의 인문학’사업 지원에 의하여 부산지역의 향토문화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한 도서관은 〈표 2〉에 나타낸 바와 같다.

〈표 2〉 부산지역 공공도서관의 향토문화 프로그램

도서관명	프로그램 명
구덕도서관	부산! 격전과 역동의 조선을 걷다
구포도서관	낙동강 물길을 따라가 본 역사와 문화의 발자취
명장도서관	만화로 읽는 조상의 마음
부전도서관	근대도시 부산을 걷다 / 고운 최치원의 길
사하도서관	부산의 설화와 함께 하는 시간여행
서동도서관	부산의 독립운동가, 송고한 발자취를 찾아서
시민도서관	인문기행 - 소통이 있어서 행복한 집
중앙도서관	느낌 아니까! 인문학으로 답하다
수영구도서관	옛 절터에서 발견하는 인문학적 상상력
화명도서관	부산토박이도 모르는 흥미로운 부산 이야기

독서관련 프로그램은 부산지역 내 모든 공공도서관에서 시행되고 있었다. 동화구연 지도사나 학습지도, 그리고 독서코칭 등 실생활에 필요한 프로그램과 자격증 취득을 위한 강의 등으로 구분되어 있었다. 특히 부산지역 공공도서관의 경우 원북원부산 운동 등 독서캠페인의 형태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 원북원부산 운동은 2004년부터 부산광역시교육청과 부산광역시 공공도서관이 공동 주관하는 독서캠페인으로 원북 시민투표, 선포식, 독서릴레이, 작가초청강연, 심포지엄, 토론회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매년 3월 원북선포식을 시작으로, 독서릴레이(4월~9월), 원북독후감모집(7월~9월) 등의 행사가 이어지며, 연계행사로 도서교환전(6월), 작가와의 만남(3, 9월), 심포지엄(10월), 원북 독서토론회(11월), 원북평가회(12월) 등이 개최된다.

독서관련 프로그램 담당자 연수 등의 교육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여름독서교실 지도사서연수, 인문독서아카데미 운영, 원북원부산운동 관련 연수, 독서토론통어리 담당자 역량강화

연수 등이 그것인데 이러한 교육의 내용이 주로 독서관련 연수에 집중되고 있었으며 문화프로그램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은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년층이나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등 정보소외계층을 위한 프로그램도 일반화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년층을 위한 서비스의 경우 시니어 인문학이나 건강정보 등(시민도서관)을 제공하는 경우와 노년층 웃음건강교실, 실버요가(구포도서관, 해운대도서관)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도서관이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프로그램은 자체 시행하기보다는 지역 내 다문화지원센터나 복지관 등과의 연계를 통하여 진행하고 있는 점이 두드러졌다. 사하도서관의 경우 지역 노인복지관과의 연계 프로그램으로 시니어 인문학, 자서전 쓰기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다. 이는 무엇보다 재정적 지원이나 공간 문제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였다.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밀착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경우도 눈에 띄는데, 많은 수의 도서관에서 창업관련 강좌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시 중심

〈표 3〉 부산지역 공공도서관 특성화 지정 현황

도서관명	특성화 주제	도서관명	특성화 주제	도서관명	특성화 주제
시민도서관	고문헌	구덕도서관	건강	기장도서관	농업, 원예
	논문	서동도서관	환경	남구도서관	청소년
	다문화(번역물 포함)	사하도서관	취업	동구도서관	레저 스포츠
중앙도서관	부산자료	연산도서관	해양·수산	반여도서관	어린이 그림책
구포도서관	유아·어린이	명장도서관	전자	북구디지털도서관	정보화
해운대도서관	어린이영어	강서도서관	농업	사상도서관	영어도서
우동분관	관광·여행	금정도서관	전통문화	수영구도서관	인문·고전
부전도서관	금융정보	영도도서관	해양수산	재송어린이도서관	유아·어린이
반송도서관	사학·역사	화명도서관	노인	총 24개관 26개 주제	

가에 위치한 부전도서관의 경우 금융, 재테크, 부동산, 경매 강좌 등 경제, 금융관련 강좌를 지속적으로 편성하고 있었다.

이는 부산지역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진행된 특성화 사업과 관련이 있는데, 부산지역의 공공도서관들은 1998년부터 특성화 영역을 정하고 그 영역에 맞도록 장서를 개발하고 관련되는 문화프로그램 운영에 주력하고 있었다. 다만, 대부분 특성화 주제에 부합한 자료를 확충하거나 특성화자료실을 설치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었으며, 시민도서관이나 구포도서관, 해운대도서관 등 비교적 규모가 큰 도서관 6개를 제외하고는 독립된 특성화자료실도 갖추고 있지 않아, 특성화 주제를 문화프로그램으로 확대, 발전시키지는 못하고 있었다. 부산지역 공공도서관의 특성화 영역 현황은 〈표 3〉과 같다.

전반적으로 부산지역 공공도서관에서는 대상과 수준 등의 면에서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었다. 그러나 앞에서 설명한대로 시민들의 요구에 비추어 현재 부산지역 공공도서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문화프로그램의 내용을 살펴보면, 시민들이 요구하는 복합적 문

화공간으로서의 위상을 갖기에는 다소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부분의 문화프로그램은 강연과 전시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고 도서관의 위치와 규모에 따라 많은 편차를 보이고 있어, 공간과 인력 등 물리적 인프라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3. 면담 및 사례 분석

3.1 조사개요

현재 부산지역 공공도서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문화프로그램 조사에 더하여 현재 공공도서관 문화프로그램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논하기 위하여 공공도서관에서 문화프로그램 진행을 담당하는 사서 6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시행하였다. 표본의 모집은 의도적 표집 방법과 눈덩이 표집방법으로 연구 참여자 선정 시 참여자에게 소개를 받아서 검토한 후 사례를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3.2 자료수집 및 분석

자료는 면담과 대화를 통하여 수집하였다. 이는 양적 데이터로서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과 사회의 상호연관성과 역동성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의도적으로 표집한 연구 참여자와 개별면담을 실시하고 그 네트워크를 통해 다른 참여자의 정보를 수집하여 면담을 가지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면담은 반구조화된 형태로 진행되었다. 면담 시행 후 전화, 이메일 등으로 보완하였다. 면담의 내용은 동의를 구하고 녹취하거나 면담을 하면서 글로 정리하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면담을 통하여 수집된 데이터는 NVivo10을 이용하여 프로젝트를 생성하고 녹취록을 각각의 Document로 불러온 후 텍스트자료를 집중하여 읽어가며 코딩하는데 새로운 의미가 나타났을 때 새로운 노드를 형성하여 코딩하거나 이전에 생성된 노드와 의미가 통하는 내용이 있을 경우 기존 노드에 중복적으로 코딩하였다. 코딩 완료 후에는 코딩된 노드들 중에서 공통된 의미를 가지는 노드를 하나의 상위범주로 구성하였다. 녹취록을 읽어가며 Nvivo10을 이용하여 bottom-up 방식으로 코딩하였다. 텍스트에서 단어, 구, 문장 단위로 개념을 추출하여 코딩을 하였고, 코딩을 완료한 후 공통적인 속성을 가지는 노드를 묶는 작업을 하며 의미를 도출하였다.

3.3 조사결과

3.3.1 문화프로그램 기획과 내용

면담에 응한 사서들은 모두 지역의 공공도

서관들이 보다 고급화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복합문화기관으로서의 기능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었다. 지역의 공공도서관이 귀중 자료 전시회, 공연과 강연을 위한 대강당과 소강당, 영화 등의 상영이 가능한 오디오리엄, 시민교육을 위한 강의실, 독서모임을 위한 여러 개의 토론방, 북카페 등을 포함하는 복합문화 공간을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뜻을 같이 하고 있었다. 그러나 동시에 현재 문화프로그램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매우 높고 정부의 문화정책에 공공도서관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현재의 공공도서관의 공간과 인력으로는 이러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은 어렵다는 반응들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다. 오히려 문화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들의 방문이 급증함으로써 도서관 시설 공간에 대한 불만 요인이 높아지는 점을 지적하면서 도서관 내에 이들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간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야기하였다.

한편으로는 문화프로그램에 치중하다보니 자료를 기반으로 한 정보서비스와 독자지원 프로그램이 위축되는 경향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었다. 즉, 도서관의 본질적인 기능보다는 문화프로그램과 평생교육 관련 기능이 강조되다 보니 예산이나 인력 측면에서 불균형이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면 이것이 과연 사서가 해야 하는 일인가 하는 생각도 든다. 문화프로그램운영이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도서관의 기본적인 역할에 충실하여 도서관과의 매개가

될 수 있는 문화공간의 역할을 벗어나면 안된다. 도서관, 독자와 직접 관련이 있는 공간 및 정책, 행사, 업무가 추가 되어야 한다. (A사서)

공공도서관의 특성과 성격을 반영한 도서관 고유의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고 본다. 도서관 하면 무엇보다 자료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 예술, 음식, 레포츠, 건강 관련 문화프로그램도 좋기는 하지만 이것이 도서관 자료 이용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것 아닌가 한다. (F사서)

도서관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은 도서관다운 특색을 지니고 있어야 하는데, 지역 내 다른 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문화프로그램과의 차별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 또한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규모가 작은 도서관에서 근무하는 사서들, 그리고 사서 경력이 비교적 짧은 사서들이 대체로 문화프로그램 운영에 대하여 부정적인 의식을 나타내는 경향이 있었다.

교육청 도서관들은 평생교육 지원도 있지만 구/군에 속한 도서관들은 교육청 소속 도서관보다 운영 인원이 부족하고 공간도 협소하기 때문에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는 문제가 많다. (C사서)

3.3.2 담당자 및 강사의 문제

문화프로그램 담당자의 업무 전담 여부에 대한 응답에 대해서는 1사람을 제외한 모든 사서들이 다른 업무도 병행한다고 답하였으며, 문화프로그램 담당자의 대부분은 타 업무도 겸직하면서 문화프로그램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이

야기하였다. 문화프로그램 담당자들이 대체로 과중한 겸직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인지 공공도서관의 문화프로그램은 대체로 경력이 길지 않는 사서들이 담당하고 있는 예가 많았다. 그러나 최근 공공도서관 교육문화프로그램은 너무 다양하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기획과 운영, 강사섭외와 피드백 등에는 상당한 전문성이 요구된다고 본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초임사서 한사람이 새롭고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책임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현실적으로 공공도서관 문화프로그램에 투입되는 인력이 경력이 길지 않은 사서이거나 소수이다 보니 프로그램 운영의 주도권을 사서나 도서관측이 아닌 프로그램 운영 강사나 협조기관이 행사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 경우 프로그램의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강좌가 종료된 이후에 받는 이용자 설문조사 밖에 없기 때문에 강사의 질 관리가 제대로 안된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강사를 섭외하는 방식은 도서관마다 다르게 나타났는데 도서관홈페이지를 통하여 직접 신청을 하기도 하고 외부기관의 강사 인력 풀을 활용하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서 90% 이상의 만족도를 보일 정도로 프로그램이나 강좌의 내용에 대해서는 검증이 이루어져 있다는 설명도 있었다.

강사 섭외는 ○○○○원 강사풀에 등록된 강사들 중에서 선별해서 섭외한다. 주로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한 경험이 많은 전문강사 풀이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다. (B사서)

우수한 강사를 확보하기에는 현재의 예산이나 지원으로는 무리가 많다. 물론 한 학기 강좌가 끝나면 강사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무리없이 나오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본다. (D사서)

문화 프로그램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사서가 방향을 명확히 잡고 진행하는 도서관이 있는 반면에, 외부기관이나 시민인문강좌 등과 같이 협력기관이 있는 경우 사서는 단지 장소 제공과 시간표 작성, 회원 모집 등만 관여하고 실제 프로그램 운영은 외부 협력기관이 담당하는 경우들도 많았다. 프로그램 담당 강사가 프로그램 운영에 간섭하는 것을 꺼린다는 설명도 있었다. 프로그램 계획은 사서들이 수립하지만 실제 강좌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람들은 전문강사들이다. 도서관에 따라 강사들은 직접 섭외하기도 하고 다른 사이트를 통해 추천받기도 하는데, 담당 강좌에 대한 전문성이나 경험은 충분하다고 볼 수 있지만, 강좌의 내용에 대한 검증이 엄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문화프로그램 담당자들은 문화프로그램과 관련된 교육 및 훈련에 참여하고 있었는데, 주로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실시하는 직무교육, 공공도서관 협의회 등의 세미나 및 강연회 참석, 지역 대표도서관을 중심 문화프로그램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었다. 다만, 이 기회가 연 1-2회에 그치다 보니 다소 식상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3.3.3 프로그램 홍보 전략

사서들은 현재 공공도서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문화프로그램의 홍보시스템 문제를 지적

하고 있었다. 문화프로그램 홍보 활동에 대해서는 도서관 내 게시판이나 현수막 등의 홍보물을 보고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하는 사서들이 많았으며, 젊은 세대들은 도서관 홈페이지 등을 통한 인터넷 게시판을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홍보 담당 내부인력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있으면 최선이죠) 정기적으로 트렌드 같은 것들을 파악하고 어떤 것이 문제점인지 찾아서 홍보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보면 늘 오는 분만 이런저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 같아서, 정말 홍보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모르겠다. (E사서)

홍보 시스템의 경우 프로그램의 주체나 규모에 따라 매우 다르게 나타나고 있었는데, 예를 들어 '원북원부산'과 같이 대규모의 행사나 캠페인의 경우 지역 언론사나 인터넷 등을 통한 전방위적인 홍보가 이루어지는 반면, 단위 공공도서관들이 시행하고 있는 문화프로그램들의 경우에는 도서관 홈페이지나 지역 아파트 등의 전단지나 게시물 이외의 홍보 수단은 특별히 활용하고 있지 않았다. 따라서 전향적인 홍보 전략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었다.

3.3.4 프로그램 운영 전략

문화프로그램 운영의 궁극적인 목적은 수요자의 만족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 대하여 사서들은 최근 공공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참여자들 가운데 지적, 예술적 수준이 높은 계층이 많고 고급 문화를 섭렵하고자 하는 욕구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강사의 역량과 자질이 확보되어야 하며, 고급 문화 프로그램이 지속적으

로 운영되어야 하고, 지역 내 문화프로그램 운영 기관간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통한 다양한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었다.

문화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이용자가 개별화되어 있지 않은 점 또한 문제로 지적되었다. 최근의 공공도서관 이용의 두드러진 특징은 이용자의 배경과 사회적 환경에 따라 개인화 및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노년층의 경우 시니어스페이스(senior space)를 제공하거나, 다문화 가정의 경우 다문화자료실 등을 제공하는 예가 있는데, 부산지역 공공도서관의 경우 독립된 다문화자료실이 설치되어 있는 곳은 시민도서관 1곳뿐이며, 다문화자료 코너가 설치되어 있는 도서관도 11곳에 불과하여 다문화자료 서비스는 역부족이었다. 또한 최근 그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 가정을 위한 공공도서관 교육문화프로그램도 5개관에서 독서교육, 동화구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고, 한국문화 소개와 한글 배우기 등의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도 4개관에 불과하여 다문화 관련 문화프로그램의 개발이 대단히 필요한 것으로 보였다.

지역 복지기관이나 NGO와의 연계를 통하여 도서관 문화프로그램의 영역을 확장하는 전략도 주효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현재 연계의 수준이 단순히 강사 지원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 다소 아쉽다는 지적도 있었다. 공간과 예산이 충분하다면 도서관 내에서 충분히 시행할 수 있는 서비스가 복지관과의 연계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특히 예술, 체육, 취미 관련 프로그램은 지역사회로부터의 요구는 많지만 실제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에는 시설과 공간 문제가 있다

고 지적하고 있었다. 구포도서관의 경우 많은 수의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노년층 웃음건강교실, 영어, 실버요가 등 노년층을 위한 프로그램이 많았으며, 다문화 프로그램이나 노년층을 위한 프로그램은 지역 내 복지관과 연계하여 시행하고 있었다.

한 가지 눈에 띄는 것은 많은 수의 도서관들이 직장인이나 학생들이 문화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야간이나 주말에도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이는 여러 선행연구에서 지적한 직장인을 위하여 야간에도 프로그램이 운영되어야 한다는 제안이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였다. 공공도서관의 문화프로그램은 주로 오전과 오후 6시 이전에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다수이기는 하였지만, 구포도서관, 시민도서관 등은 직장인이나 학생들을 위한 문화프로그램을 야간에 편성하고 있었다.

3.4 공공도서관 문화서비스 방안

현재 부산지역 공공도서관에서 시행되고 있는 문화프로그램의 한계점을 실제 공공도서관에서 문화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는 사서들과의 면담결과를 통하여 분석해 보면 문화프로그램은 프로그램 자체의 구동력만으로 진행되기에는 한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공공도서관의 문화복합공간화를 통한 공간적 문제 해결과 지역 내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지역민의 문화요구 대응 등의 전략이 종합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해외의 공공도서관들 역시 변화하는 시민들의 요구에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례들을 면담에 참여한 사서들에게 제시하고 브레인스토밍을 통하여 우

리 공공도서관에서도 고려해 보아야 하는 사항들 위주로 정리해 보았다.

3.4.1 지역문화계와의 연계와 서비스

사서들을 통하여 확인한 것은 공공도서관이 지역 내 문화서비스 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이용자들이 그들이 원하는 문화서비스를 자유롭게 이동(navigating)할 수 있는 플랫폼(platform) 기능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는 이미 콕철완 등(2009)의 연구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지역 문화계와 공공도서관의 연계 사례는 서양의 공공도서관에서 어렵지 않게 관찰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캐나다의 밴쿠버 공공도서관(Vancouver Public Library)의 경우 Inspiration Pass와 Cultural Access Pass 제도를 통하여 도서관 회원증으로 지역 내 문화기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¹⁾ 비슷한 제도로 미국 시애틀 공공도서관(Seattle Public Library)의 Public Arts Program²⁾이 있다.

이는 공공도서관이 지역 문화계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경우에 가능한데, 그 예가 미국 샌디에고 공공도서관(San Diego Public Library)이다. 이 도서관은 Local Author Program, Opera Insights Series, 그리고 'On View'라는 시각예술 프로그램을 통하여 지역 내 우수한 작가들을 발굴하고, 그들에게 공연, 전시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도서관이 지역 문화계의 인큐베이팅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³⁾

실제로 서양의 공공도서관에서는 음악 CD와

그림을 대출자료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는 예를 볼 수 있다. 즉, 일반자료와 마찬가지로 음악 CD나 영화 DVD를 자유롭게 대출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벽에 걸 수 있는 그림과 사진 등을 도서관이 구입하여 제공하고 이용자들은 이를 2개월마다 한 번씩 교체해 가면서 가정에 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프랑스의 공공도서관들처럼 CD, DVD, 그림 등의 자료를 이용하는데 대해서는 별도의 유료 회원제 정책을 사용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공공도서관이 지역 예술계와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전시회나 공연 등을 주관하고 지역 화가나 음악가들의 작품과 CD를 구입하여 도서관 자료로 등록한 후 이들을 대출한다는 것이다. 대출기간은 2-4개월로 다양하다. 이를 통하여 공공도서관은 지역 문화계와의 연계를 단단하게 하고 지역사회 내에서 지역의 문화 발전에 실질적으로 개입하는 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유지할 수 있다.

3.4.2 건강정보서비스

공공도서관의 건강정보서비스 제공에 대해서는 우선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서 공공도서관의 교양·문화프로그램의 일환으로서 기본적인 건강지식, 응급처치법, 섭생과 성교육 등을 내용으로 하는 건강·보건프로그램을 예시하고 있으며, 특히 노년층을 위하여 '건강 등 관심분야 장서 미 정보서비스 개발, 제공'이 중요하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1) 밴쿠버공공도서관. [cited 2014. 11. 5.] <<http://www.vpl.ca/programs/>>

2) 시애틀공공도서관. [cited 2014. 11. 5.]

<<http://www.spl.org/locations/central-library/cen-plan-a-visit/cen-public-art>>

3) 샌디에고공공도서관. [cited 2014. 11. 5.] <<http://sandiego.communityguides.com/authors2013>>

2014). 또한 국내의 많은 학자들이 그 필요성에 대하여 역설하고 있다(노영희, 오상희 2011; 노영희 2012; 남재우, 박태연 2014).

면담에 참여한 사서들에게 건강정보서비스의 필요성과 전략에 대하여 물었다. 이들은 대체로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었지만, 사서가 의학적 지식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었다. 별도의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실제로 이용자들이 필요로 하는 수준의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어렵다는 반응이 많았다. 사서들이 인정한 대로 우리사회에서 노령인구의 증가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늘어감에 따라 소비자건강정보서비스(CHI: Consumer Health Services)에 대한 정보 서비스는 필수적이다. 소비자건강정보서비스는 미국의 경우 1990년 중반부터 관심이 비롯되었으며, 2000년 미국 국립의학도서관(NLM)의 프로젝트가 수행된 이후 지속적으로 공공도서관의 서비스의 본격적 영역으로 인정받고 있다. 공공도서관에서 문화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사례로 미국 시애틀 공공도서관의 Health and Medicine Program⁴⁾ 등이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본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건강관련 정보는 건잡을 수 없을 정도로 범람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도서관에서 건강정보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할 필요에 대한 연구들도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공도서관은 지역 의료계 또는 공공의료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하여 정확하고 가치있는 정보를 선별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를 확대하되, 노년층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령대와 계층에 걸쳐져 있는 지역주민을 위하여 건강정보와 예술-문화프로그램을 적절하게 융합한 생애주기별 건강문화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AAAS 2010).

3.4.3 창조공간(Makerspaces) 프로그램 개발

최근 도서관 공간을 활용한 창조공간 프로그램사업 개발에 대한 관심도 생겨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국가차원의 'Makerspaces Movement'가 진행 중이며 우리나라에서도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산자원부 등이 협력하여 과학관, 도서관, 주민센터 등 생활공간을 대상으로 창의적 공간을 설치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현재 지역별로 무한상상실 거점센터(<http://www.ideaall.net>)가 설치되어 있다. 도서관계에서는 현재 광진정보도서관과 목포공공도서관 등 10여개의 도서관이 지원과제를 진행 중이라고 한다.

물론 아직은 도서관에서 이 개념을 적용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있기는 하지만, 2014년에 발표된 제 2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서 공공도서관내에 창조·상상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미래창조형 도서관 지식정보서비스 강화를 위한 추진과제'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특히 어린이 서비스에 있어서 '무한창조공간'화 시설은 도서관이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할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다.

이 공간은 물리적 공간뿐만 아니라 사이버공간에서의 공동 작업을 통하여 과학, 기술, 수학 등의 학문분야의 문제를 해결하는 공간(노영희 2014)으로 진화할 수도 있다. 단순하게는 Science Hall

4) 시애틀공공도서관. [cited 2014. 11. 5.]

<http://www.spl.org/library-collection/articles-and-research/health-and-medicine>

과 도서관의 연계 개념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디지털 공간으로의 확산에 강점이 있을 것으로 본다.

최근 시카고 공공도서관(Chicago Public Library)은 Maker Lab(과학·산업·박물관 실험실) 지원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데,⁵⁾ 우리나라의 경우도 도서관에서 단순히 강좌나 탐방 위주의 문화프로그램에서 탈피하여 문화적 상상력을 현실에 구현할 수 있는 장치로서 창조공간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3.4.4 이용자 개별화

향후 공공도서관 서비스는 노년층(시니어 스페이스), 다문화계층(다문화홀), 어린이-청소년(무한창조공간 또는 UX Center), 장애인(장애인 편의공간 및 독서치료실) 등 이용자의 개별적 상황이나 요구에 따라 재편될 것이 분명하다. 사서들도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예측하고 있다고 답하고 있었다. 부산지역의 경우 공단 지역에 위치한 공공도서관들의 경우 다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도 하였지만, 대체로 이러한 변화를 수용하는데 있어서는 소극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다만, 커뮤니티의 다양한 요구를 한 곳에서 흡수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복합적인 기능이 요구된다는 점은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영국 버밍엄 공공도서관(Library of Birmingham)의 사례⁶⁾를 복합문화공간 개념을 내포한 미래형 도서관의 좋은 사례로 들고 있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구/군 단위 공공도서관에서 이러한

모습이 구현되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적어도 지역대표도서관은 이러한 복합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지역 내 문화원, 문예회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병원, 시민단체, 복지관과 특수학교, 박물관, 과학관, 미술관, 체험관 등과 네트워크에서 리더십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었다.

현재 부산지역 공공도서관의 문화프로그램 가운데 노년층이나 청소년, 그리고 다문화가정과 같은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프로그램은 도서관 자체적으로 진행되는 경우보다는 지역 내 기관이나 단체와의 협력을 통하여 진행되는 경우가 더 많았다. 이는 주로 공간과 전문인력의 부족에서 기인하는 것인데, 단지 강사 지원 등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향후 이용자 지도의 변화에 따라 이용자의 개별적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도서관이 리더십을 갖기 위한 전략이 준비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볼 수 있다.

4. 결 론

이 글에서는 공공도서관의 문화프로그램의 중요성과 향후 공공도서관 서비스의 방향성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이를 위하여 부산지역 공공도서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문화프로그램의 현황을 조사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실제 공공도서관에서 문화 프로그램 운영을 담당하는 사서들과의 면담을 진행하면서 해외의 공공도서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문화프로그램의 사례에 대하여 브레인스토밍을 하고 이에 대한

5) 시카고공공도서관. [cited 2014. 11. 5.] <<http://www.chipublib.org/maker-lab/>>

6) 버밍엄도서관. [cited 2014. 11. 5.] <<http://www.libraryofbirmingham.com/>>

사서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프로그램 운영의 개선방안을 논하였다.

면담과 대화과정에서 다시 확인한 것은 향후 공공도서관은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한 특성의 서비스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을 것이라는 점이다. 다양해지는 지역 주민들의 문화적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보와 교양, 사상과 문화가 한 곳에서 어우러지는 복합 문화 기능을 수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문화적 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문화와 예술에 대한 투자는 쉽사리 증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 지역 내에 도서관과 유사한 문화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기관들

도 계속 늘어날 것이며, 사적 영역으로부터의 도전과 한정된 지원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도 치열해 질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변화와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서 도서관도 지역 내 관련 기관과의 네트워킹을 주도하면서 리더십을 행사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차별성이 약한 프로그램에서 탈피하여 자원과 서비스의 영역을 확대하고 전향적인 발전전략을 모색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하여 공공도서관은 단순히 정보의 제공처로서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의 소통과 정보공유의 장이자 문화적 경험의 확장을 가능하게 하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감미아, 이지연. 2013. 공공도서관과 지역사회기관의 문화프로그램 비교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4(4): 197-215.
- [2] 광철완 외. 2009. 공공도서관 문화프로그램 모형 및 운영매뉴얼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0(1): 197-208.
- [3] 국립중앙도서관. 2012. 『전국 작은도서관 운영 실태조사 및 분석연구』. 국립중앙도서관.
- [4] 김홍렬. 2004. 지역주민을 위한 공공도서관의 문화 및 교육적 기능확대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5(4): 339-360.
- [5] 남재우, 박태연. 2014. 공공도서관의 이용자의 건강정보서비스 수용의도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8(2): 221-240.
- [6] 노영희. 2014. 도서관 무한창조공간의 개념 및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31(2): 143-171.
- [7] 노영희, 오상희. 2011. 공공도서관에서 소비자건강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사서의 인식 조사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2(3): 25-55.
- [8]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2014. 『제2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14-2018)』. 세종: 대통령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 [9] 문화체육관광부. 2012. 『전국 공공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

- [10] 박미영. 2007. 공공도서관 특화서비스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독서활성화 방안.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8(1): 315-339.
- [11] 부산광역시 교육청. 2011. 『부산지역 공공도서관 발전방안 연구』. 부산광역시 교육청.
- [12] 부산광역시. 2014. 『부산지역 대표도서관 건립 기본계획 연구』. 부산광역시.
- [13] 심효정, 이용훈. 2003. 공공도서관을 활용한 공교육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모색.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4(4): 153-177.
- [14] 양병훈. 2012. 작은도서관 문화프로그램 활성화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6(1): 289-309.
- [15] 이소연. 2004. 지역사회 주민을 위한 공공도서관의 문화 서비스 활성화 방안.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8(3): 23-43.
- [16] 장우권. 2009. 공공도서관의 지역문화콘텐츠의 관리와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전남지역의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3(1): 271-292.
- [17] 조인숙, 김수희. 2010. 제주지역 공공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실태분석 및 이용자 만족도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1(2): 31-42.
- [18] 황금숙, 김수경, 박미영. 2008. 공공도서관 문화프로그램 현황 분석과 활성화 방안.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9(1): 219-244.
- [19] American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 2011. *The Challenge of Providing Consumer Health Information Services in Public Libraries*. Washington: DC, AAAS.
- [20] Davis, D. 1974. *Public Libraries as Culture and Social Center: The Origin of the Concept*. Metuchen, N.J.: Scarecrow Press.
- [21] Williams, Raymond. 1983. *Keywords: A Vocabulary of Culture and Societ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22] 밴쿠버 공공도서관. [cited 2014. 11. 5.] <<http://www.vpl.ca/programs/>>
- [23] 시애틀공공도서관. [cited 2014. 11. 5.] <<http://www.spl.org/locations/central-library/cen-plan-a-visit/cen-public-art>>
- [24] 시카고공공도서관. [cited 2014. 11. 5.] <<http://www.chipublib.org/maker-lab/>>
- [25] 샌디에고공공도서관. [cited 2014. 11. 5.] <<http://sandiego.communityguides.com/authors2013>>
- [26] 버밍엄도서관. [cited 2014. 11. 5.] <<http://www.libraryofbirmingham.com/>>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1] Kam, M and Lee, J. 2013. "A Comparative Study of Cultural Programs Offered by Public

- Libraries and Other Regional Public Service Institutions.”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4(4): 197-215.
- [2] Kwak, C. et al. 2009. “Study of the Model and Program Manual of Public Library Cultural Programs.”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0(1): 197-208.
- [3] National Library of Korea. 2012. *National Survey on Small Libraries*. NLK.
- [4] Kim, H. 2004. “A Study on the Cultural and Educational Function of Public Libraries for Regional Development.” *Journal of the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5(4): 339-360.
- [5] Nam, J. and Park, T. 2014. “A Study on Intention of Accepting for Consumer Health Information Services in Public Librari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8(2): 221-240.
- [6] Noh, Y. 2014. “A Study on Establishing Creative Zones and Creative Zone Programming.”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Management*, 31(2): 143-171.
- [7] Noh, Y. and Oh, S. 2011. “An Analysis of the Librarians Perception of Providing CHI Services in Public Libraries.”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2(3): 25-55.
- [8] Committee on Library and Information Policy. 2014. *The Comprehensive Library Development Plan 2014-2018*. Sejong: CLIP.
- [9]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12. *National Survey of Cultural Programs in Public Libraries*. MCST.
- [10] Park, M. 2007. “The Revitalization of Public Library Reading Through Special Quality Service Program Development.” *Journal of the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8(1): 315-339.
- [11] Busan Metropolitan City Office of Education. 2011. *Public Library Strategic Plan in Busan*. Busan, BMCOE.
- [12] Busan Metropolitan City. 2014. *Busan Metropolitan Library Master-plan*. Busan, Busan Metropolitan City.
- [13] Shim, H. and Lee, Y. 2003. “Collaboration with Public libraries in Facilitating Arts Education Programs in School.” *Journal of the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4(4): 153-177.
- [14] Yang, B. 2012. “A Study on the Analysis and Improvement of Cultural Programs in Small Libraries: The Case of Seoul Metropolitan Cit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6(1): 289-309.

- [15] Lee, S. 2004. "Strategies for Improving Cultural Services of public Librari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38(3): 23-43.
- [16] Chang, W. 2009. "A Study on the Management and Practical Use Program of Local Cultural Contents in the Public Librar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3(1): 271-292.
- [17] Cho, I. and Kim, S. 2010. "A Study on the User Satisfaction of Cultural Programs of Public Library in Jeju Are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1(2): 31-42.
- [18] Hwang, K., Kim, S. and Park, M. 2008. "A Study on Analysis and Improvement of Cultural Programs in Public Libraries." *Journal of the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9(1): 219-244.